

다산포럼



김세종
다산연구소 소장

연말연시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느라 뜬다는 때다. 하지만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2020년 3월 18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범유행 사태의 몇 가지 사회적 고려 사항을 다루어 정신 건강 및 정신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격리 및 사회적 활동의 제한과 공포, 실업 및 재정적인 요인으로 인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자살률의 잠재적 상승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상식적으로 불안·공포·우울이 지나치면 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또 다른 코로나19 전염병 증후군이 되고 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안·공포·우울을 떨쳐 내는 생활 속 지혜로 음악을 추천해 보고 싶다. 음악은 마음이 움직여서 소

음악으로 시대적 어려움을 극복하다

리로 표현된 예술이다. 따라서 음악은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바로 기분을 전환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음악의 3요소에는 선율(멜로디)·화음·리듬(장단)이 있는데, 선율이 주는 긴장 완화나 화성이 주는 편안함과 포근함, 그리고 리듬에서 비롯되는 역동성 등이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음악은 쉽게 동화하고 조화롭게 어울리는 효용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옛 사람들은 음악을 가까이하였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다. 첫째, 음악은 바름(正)과 그림(邪)을 분별한다. 둘째, 음악은 서로 다른 소리를 하나로 만든다. 셋째, 음악은 몸을 닦고 성품을 다스려 본래의 참마음으로 되돌린다. 넷째, 음악은 혈맥을 뚫게 하고 정신을 윤통시킨다. 다섯째, 음악은 마음을 즐겁게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의 심리 상황이 점점 내향적으로 변하는 변곡점에서, 음악 활용은 불안·공포·우울을 다스리는 힐링의 대안이 된다. 곧 케이 뮤직(K-Music)이 침체한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고 달래 주며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이다.

요즘 TV만 틀면 트로트가 흘러나온다. 그야 말로 트로트 전성시대이다. 트로트는 한때 일본의 ‘엔카’와 닮았다는 이유로 배척당하기도 했고, 특별한 이름 없이 ‘유행가’ ‘유행소곡’ 또는 ‘뽕짜’ 이라고 불리며 쇠퇴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나 중·장

년층이 즐겨 들던 음악이라는 인식을 넘어 2030세대는 물론 10대까지 열광적으로 향유층에 함유했다.

트로트가 새로운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요즘 국민의 생활음악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일단 트로트는 멜로디를 따라 부르기 쉽고, 노랫말이 직설적이고 솔직하다. ‘꺾기’식 창법(바이브레이션)에서는 우리나라 민요의 어법을 수용한 신민요 양식을 변별적으로 응용하고 있다.

또한 박자에서는 한 박자를 3박으로 나누기보다는 한 박자를 2박, ‘쿵짝 쿵짝’ 하는 4분의 2나 4분의 4박자 리듬으로 구분하고 있다. 3박으로 나누어 느릿느릿한 3박 보다는 2박을 둘로 나누어 듣는 사람에게는 역동적이고 신나게 만든다고 한다. 하지만 트로트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누가 뭐래도 트로트 가수의 목소리에 흐르는 감정이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있기 때문일 게다.

가령 우리가 어떤 감정을 슬프다고 말할 때 사실은 그 안에 슬픔이라는 말만으로는 다 담아 낼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이 있다. 그 슬픈 감정 속에는 서러움, 애절함, 절박함, 상실감, 원망, 쓸쓸함 등이 있다. 이처럼 음악에서 표현되는 소리에도 질음과 열음을 나타내는 농담(濃淡)이 담겨 있다. 분명 트로트는 사람의 저 깊은 마음에서 길러 낸 감정 표현과 다양한 음색이 창의성으로 어우러져 만들어 낸 소리에술이요 시간예술인에 틀림없다.

청춘특독



박세훈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1년

지난 12월 13일 성범죄자 조두순이 마침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그가 출소하자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2년이라는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양형에 대해서도 비난이 일고 있다. 그의 재범을 우려하며 안산시가 중앙 정부 및 국회에 요청한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인 ‘보호수용법’ 제정 필요성에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등 조두순을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멀리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치고 있는 형세다.

하지만 작년에 벌어진 한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유독 다른 반응이 나타났다.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 종업원이었던 장대호는 투숙객 A씨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했다. 장 씨는 시신을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5차례 걸쳐 한강에 버렸다. 이후 그는 모텔의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시신 유기 닻새 후인

일그러진 정의감

17일 오전 1시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A씨가 반말을 하며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으려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강에 따르면 장대호는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평소 반사회적인 성향을 강하게 띤 인물로 성장했다고 한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그가 인터넷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은둔형 외톨이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2019년 8월 20일 경찰은 피의자 장대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체포 후 언론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하자 그는 “다음 생애 또 그러면 너 나한테 죽어”라는 발언을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취재진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까지 보였다.

대법원은 장 씨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지난 7월 29일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 수단 및 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인) 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런 그의 일토당토않

은 행동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었다. 인터넷 댓글에서는 피해자가 유능업소 사장, 강패라는 등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유포되며 피해자를 ‘죽어도 썸’ 사람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그 후 피해자가 조선족이라는 사실이 공개되자 조선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에 근거해 살인범인 장대호를 정의를 실현한 의인이라는 뉘앙스로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사건 한 달 후, 시신의 절반도 찾지 못한 채 유족은 피해자의 장례를 치러야만 했다. 피해자 이 씨는 변을 당하기 전 다섯 살 아들과 둘째를 임신한 아내를 둔 평범한 가정이었다. 사건 후 이 씨의 아내는 아이를 유산했고 감상선암을 판정받아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한 편으로 일그러진 정의감으로 포장된 여론 속에서 장대호의 이름은 올해 초 갑자기 공개된 그의 자칭 ‘회고록’을 통해, 물론 일부이지만 다시금 영웅(?)으로까지 묘사되고 있다.

장대호에 대한 인터넷상의 유별난 반응을 보면 과연 우리 사회가 바라는 정의가 무엇인지 크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와 인터넷에 떠도는 유언비어는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재판한다. 이런 근거 없는 여론에 휩쓸려 흉악 살인범을 의인이라 추켜세우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범죄자에게 관대하며 사법제도를 유효한 자격이 있는 것일까.

기고

‘광주형 평생주택’이 뭘까



배윤식
광주도시공사 사업이사

아들은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일명 Y세대)다. Y세대답게 ‘올로’(YOLO)를 의미하며 여행과 콘서트, 레저를 즐기고 사회적 역할보다 개인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결혼 적령기가 되었지만 인생의 목표를 취업이나 결혼, 내집 마련 같은 것으로 치환시키지 않는다. 어떻게든 결혼을 시키려는 부모 생각과 다르게 다분히 현재를 즐기고 사는 ‘카르페 디엠’(Carpe Diem)족이다. 비단 우리 가정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극심한 취업난과 높은 집값 등 불안정한 사회망이 청년들로 하여금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나아가 더 많은 것을 포기하게 하는 N포 세대를 낳은 것이다.

그런데도 금융회사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재무적 목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1위가 ‘주택 구입 재원 마련’, 2위가 ‘은퇴 자산 축적’ 3위가 ‘결혼 자금 마련’ 순이었다. Y세대의 가치관을 생각했을 때 참 역설적인 결과다. 물론, 기성세대나 Y세대 이후 Z세대에게도 인간에게 집이란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집에 대한 인식은 최소한의 권리를 넘어선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심리로 경제적, 사회

적 부작용을 낳은 지 오래다. 공공 임대주택은 이런 잘못된 주택 인식을 개선할 대단히 중요한 해법이라고 본다. 물론 공공 임대주택이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와 시장 원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미 과열된 투기로 내집 마련이 요원하다면 그 대안은 공공 임대주택이 될 것이다.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없애고 공공재로서 사회안전망이 되려면 얼마나 안정적으로 양적·질적 공급이 이뤄지는가에 성패가 달려 있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화성 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한 현장에서 비롯한 ‘임대주택 면적 13평’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13평에서 4인 가구가 살 수 있겠다”라고 발언해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가 ‘대통령이 국민들 눈높이를 모른다’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고, 정치권도 본질을 호도하면서 불을 붙였다.

발언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누구나 악의적 공세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논란이 된 면적 44㎡(13평)는 법적으로 최저 주거 기준 면적(43㎡)이다. 주택법에 최저 주거 기준이 생기기 전 2000년이었고, 이 기준은 2011년 단 한 차례 상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번 공공주택 면적 논란은 지난 10년 동안 국민소득 수준이나 주거 상황이 대폭 개선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질적 측면에서 공공 임대주택의 면적 확대(중형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광주시는 이런 주거 상황 여건을 고려한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계획’을 통해 공공 임대주택 정책의 변화를 밝혔다. 집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새로

운 유형의 질 좋은 광주형 평생주택(중형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광주형 평생주택의 공급 대상은 기존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 이하 무주택 세대대로 범위를 확대하고, 면적은 기존 소형 평형(60㎡ 이하)을 중형(85㎡ 이하)으로 확대한다.

광주시는 현재 공공 임대주택 비율 10.5%를 1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2030년까지 1만 8000호를 건설하고, 1단계로 주변 인프라가 잘 구축된 상무소각장 옆 공공부지에 500세대를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소셜 믹스 단지로 건립해 2024년 초 입주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2단계는 1단계 시범 사업을 통해 광주형 평생주택 모델을 정립한 후 본격적인 신규 유형의 대규모 부지 확보와 기존 공공 임대주택 유형 변경 등으로 마련된다.

광주형 평생주택의 목적은 아파트를 소유나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저렴한 임대료로 평생 거주가 가능한 맞춤형(1인 가구형, 신혼부부형, 실버형 등) 주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도심지 내 생활 기반시설과 국공립 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다양한 사회간접자본(SOC)을 갖춘 양질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30년 이상 평생 거주가 가능한 혁신적인 주거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제는 공공 임대주택도 까다로워진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시설과 공급이 필요하고, 광주가 공공 임대주택의 중형화를 선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무쪼록 광주형 평생주택이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의 안정과 자산 증식이 아닌, 평생 살고 싶게 만드는 실거주 개념 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첫 삽 뜨는 호남고속철 2단계 준공 앞당겨야

정부의 무관심으로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건설 사업이 드디어 연내 착공된다.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나주 고막원-목포 임시리 구간(44.1km)에 고속철도 노선을 새로 까는 것이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목포에서 서울까지 이동 시간이 2시간 10분대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그제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반 공사를 맡을 시공업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2단계 사업은 지난 2015년 개통된 충북 오송~광주 송정(182km) 간 1단계 구간에 이어 호남선의 종착역인 목포까지 추가로 고속전철화하는 것이다. 총사업비 2조 5789억 원이 투입되며 공사가 마무리되면 서울 용산·수서에서 목포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2시간 13분에서 2시간 10분으로 단축된다.

특히 고막원-임성리 노선 신설과 함께 국토 서남권 관문 광안면 무안국제공항에는 지방 공항으로는 유일하게 KTX 역사가 신설된다. 이처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 무안공항은 여객 유치에서 경쟁력을

확보, 지난 2007년 개항 이래 최대 호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호남선 KTX는 36년 만에 완공된 호남선 복선화와 함께 그동안 호남 차별의 상징으로 꼽혀 왔다. 1단계 개통은 2004년 개통된 경부선 1단계에 비해 11년이나 늦었다. 광주 송정 이남은 노선 협의 지연과 역대 정부의 무관심으로 사업이 지체되면서 ‘반쪽 고속철도’라는 오명을 써야 했다. 2단계 역시 계획대로라면 애초 개통 예정 시기인 2017년보다 8년이나 늦어지게 된다.

따라서 전남도와 지역민들은 정부가 예산을 집중 투자해 2단계 사업을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23년에 준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레아 영호남 철도망 격차가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전선과 남해안철도 구간도 영남은 대부분 복선 전철화됐지만 전남 구간은 단선에 비전철이 많다. 정부는 사업 타당성만 따지지 말고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발전의 전기 마련을 위해 전남 철도망 건설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확산세 억제 연말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3단계 판단 기준은 일별 확진자 수가 800~1천 명을 넘어갈 때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현재 이미 이 기준값 안에 들어간 상황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16일 10명, 17일 4명, 18일 9명, 19일 14명, 20일 12명 등 5일간 49명을 기록했고, 전남도는 이 기간 동안 모두 18명이 신규 발생했다. 최근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유통업체 방문과 타 시도 방문 그리고 기도원 행사 참석과 지인·친인척 등에 따른 n차 감염 등이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자나 직원들의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군인들의 대규모 감염도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일 광주기독교병원

에서 간호조무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간호사2명과 환자 3명 등 추가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 교회 모임과 지인들끼리의 연말 모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주가 최대 위기 상황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 준수와 함께 연말 모임 취소, 불필요한 외출 자제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아무리 방역을 강화하더라도 시민들의 협조가 없다면 백악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탄절 예배 시 교회와 신도들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시민들도 코로나 제3차 대유행으로부터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도록 가급적 연말 가족·지인 모임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최근 일주일간(12월 15일~2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1015명 꼴로 나오면서 3차 대유행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무증상 확진자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지난 14일부터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익명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과 5일 만에 2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만큼 지역사회에 숨은 확진자가 많다는 의미다. 그러니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해도 코로나19 확산 흐름이 꺾일 수

아직은 장담할 수 없다. 소설가 알베르 카뮈가 지난 1947년에 발간한 소설 ‘페스트’는 제목과 내용에서 2020년 전 세계를 섧다운 시키고 있는 코로나19 대확산 사태를 관통하고 있다. 그는 뜻하지 않은 재앙 앞에 낙담한 인간의 군상을 그리면서도 결국 희망을 토대로 하는 사회적 연대만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해 시대를 뛰어넘는 공감을 자아냈다. 소설은 또한 부조리한 절망적 상황을 통해 ‘나’에서 ‘우리’로 변화되는 삶의 존재 가치를 보여 준다.

희망의 맞불

‘불은 불로 끈다’는 말이 있다. 화재 발생 시 바램 등의 진로를 계산, 맞불을 내서 오히려 불길 확산을 막는 방법이다. 코로나19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회 전반의 불안감과 피로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요 코로나는 결국 극복될 것이다. 이는 전쟁과 질병 등 그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 도 희망과 헌신의 ‘맞불’을 통해 미래를 열어 갔던 ‘우리’라는 인류 공동체의 저력을 믿기 때문이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소식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과연 종식시킬 수 있을지는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0-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